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2021

ANNUAL REPORT
2021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20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CONTENTS

Supporters KAWF

재단 소개

- 04 미션 및 비전
- 05 연혁

조직

- 06 조직 및 부서별 업무내용
- 07 이사회
- 08 예산 현황

Smile again, Artists

사업 성과

- 09 2021년도 주요 성과
- 11 창작역량 강화
- 12 직업역량 강화
- 14 불공정관행 개선
- 18 사회안전망 구축
- 22 예술활동증명
- 23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20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박영정

편집인 정철

기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누리집 www.kawf.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전화 02-3668-0200

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재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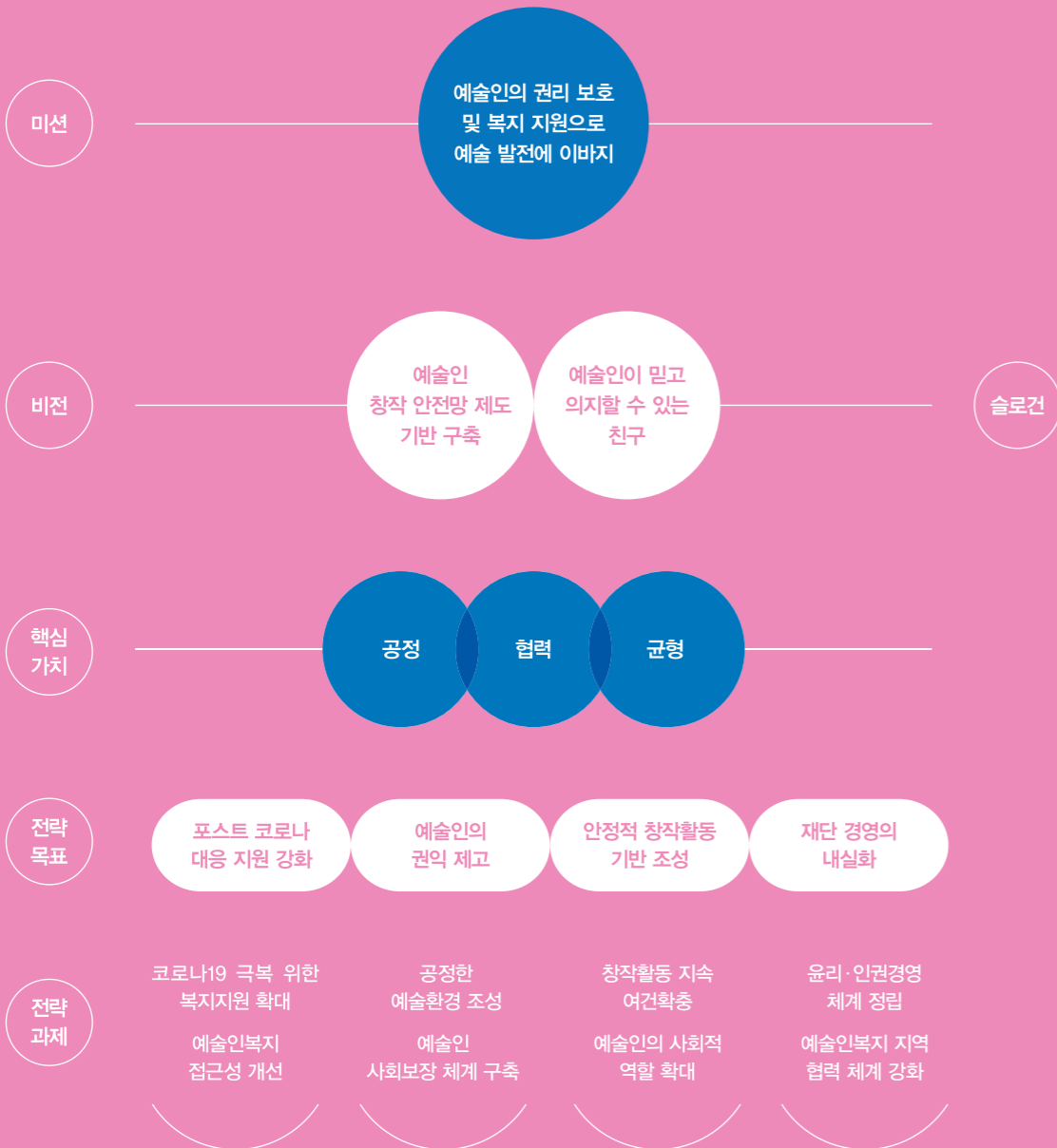
미션 및 비전

설립 목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기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예술활동에 전념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환기하고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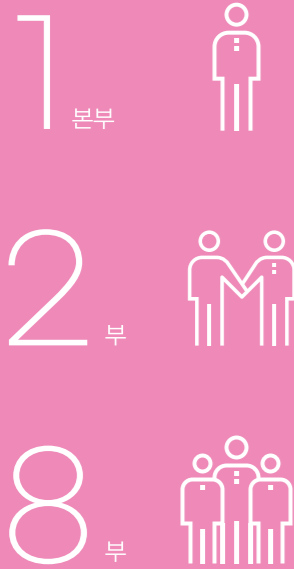
재단 소개

연혁

2011	11. 17	예술인 복지법 제정
2012	11. 18	예술인 복지법 시행
	11. 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제1대 이사장 김주영 취임 제1대 상임이사 심재찬 취임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
2013	03. 05	창작준비금(디딤돌) 사업 시행
	09. 30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소
	12. 10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	01. 28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시행
	02. 24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개설
	03. 27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예술법인 지정
	03. 31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소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대한법률구조공단)
	04. 15	반디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05. 14	문화예술융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06. 19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시행(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업무협약 체결)
	10. 22	제2대 상임이사 박계배 취임
	12. 19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
	2015	01. 29
2016	02.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5,4시행)
	02. 11	문화·예술인 패스 사업,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이관
	02. 15	제2대 이사장 이문열 취임
	09. 21	예술인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0.12 기준 총 19개 광역/기초 문화재단)
11. 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 확대(12,30 시행)	
2017	03. 14	예술인 자녀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12. 28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2018	02. 23	제3대 상임이사 정희섭 취임
	06. 20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06. 27	제3대 이사장 윤영달 취임
	10. 24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 출범
2019	06. 24	예술인생활안정자금(옹자) 시범사업 시작
	08. 26	예술인복지위원회 출범
	11. 18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출범
2020	03. 01	어린이집 입소 시 예술활동증명 재직증명 인정
	05. 27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개설
	12. 10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2021	02. 01	예술활동증명 원료자 10만명 돌파
	04. 01	제4대 상임이사 박영정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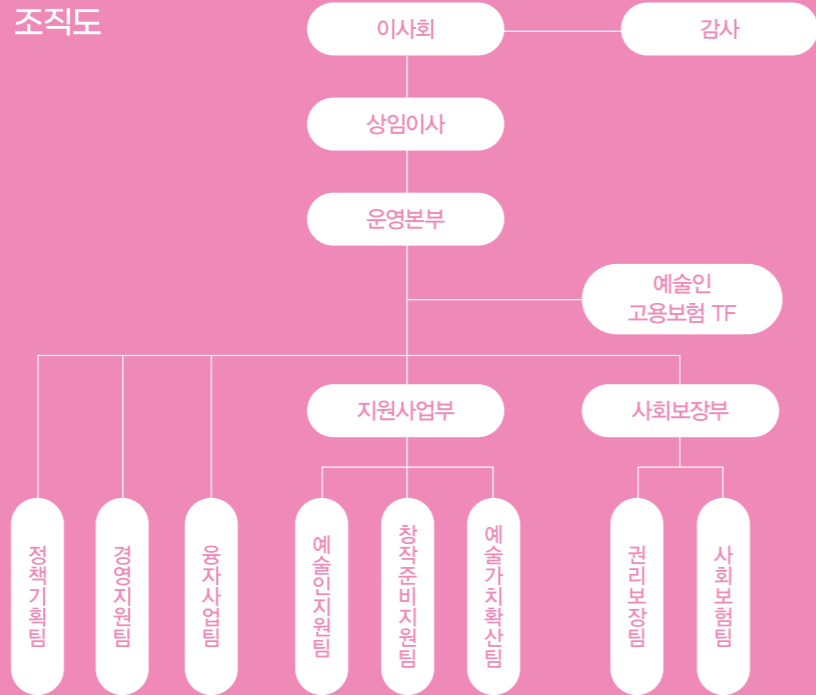
조직

조직 구성



조직 및 부서별 업무내용

조직도



부서별 업무내용

팀명	부서 업무
정책기획팀	1 경영기획 및 평가분석 2 홍보 3 국회 및 대외 업무 4 예술인복지위원회 운영 5 조사연구 6 인권경영 7 기부금 운영 8 기타 정책 사업
경영지원팀	1 주요 업무계획 수립 2 예산편성·기획·관리, 계약 3 자체감사 4 이사회 운영지원 5 규정 제·개정 및 제도 관리 6 법인 인감 및 직인관리 7 인사·노무·직원교육·근태관리 8 회계·총무 9 웹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 10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등
옹자사업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옹자) 사업

팀명	부서 업무
예술인지원팀	1 예술활동증명 지원 2 재단 사업 안내 및 응대 3 예술인패스 4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사업
지원사업부	창작준비지원팀 1 창작준비금지원사업 2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가치확산팀	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2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사회보장부	권리보장팀 1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2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3 불공정 행위 상담 신고 접수 및 소송 지원 4 상담·컨설팅 지원 등 5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지원
사회보험팀	1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 2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3 의료비 지원 4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안내

조직

이사회 구성



이사회

직위	이름	주요 경력
이사장 (비상임)	윤영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상임이사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2018.2.23.~2021.3.31.)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2021.4.1.~)
이사 (비상임)	정인석	(주)아이엠컬처 대표
	김인희	발레STP협동조합 이사장
	오진이	서울문화재단 전문위원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이은봉	대전문화관 관장
	김영철	前 G1 강원민방 대표이사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
	홍경한	미술평론가
	황준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2020.6.8.~2021.10.11.)
당연직 이사 (비상임)	이은복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2021.10.12.~)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2019.6.13.~2021.3.2.)
	박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2021.3.3.~)
감사 (비상임)	하주희	법무법인 올림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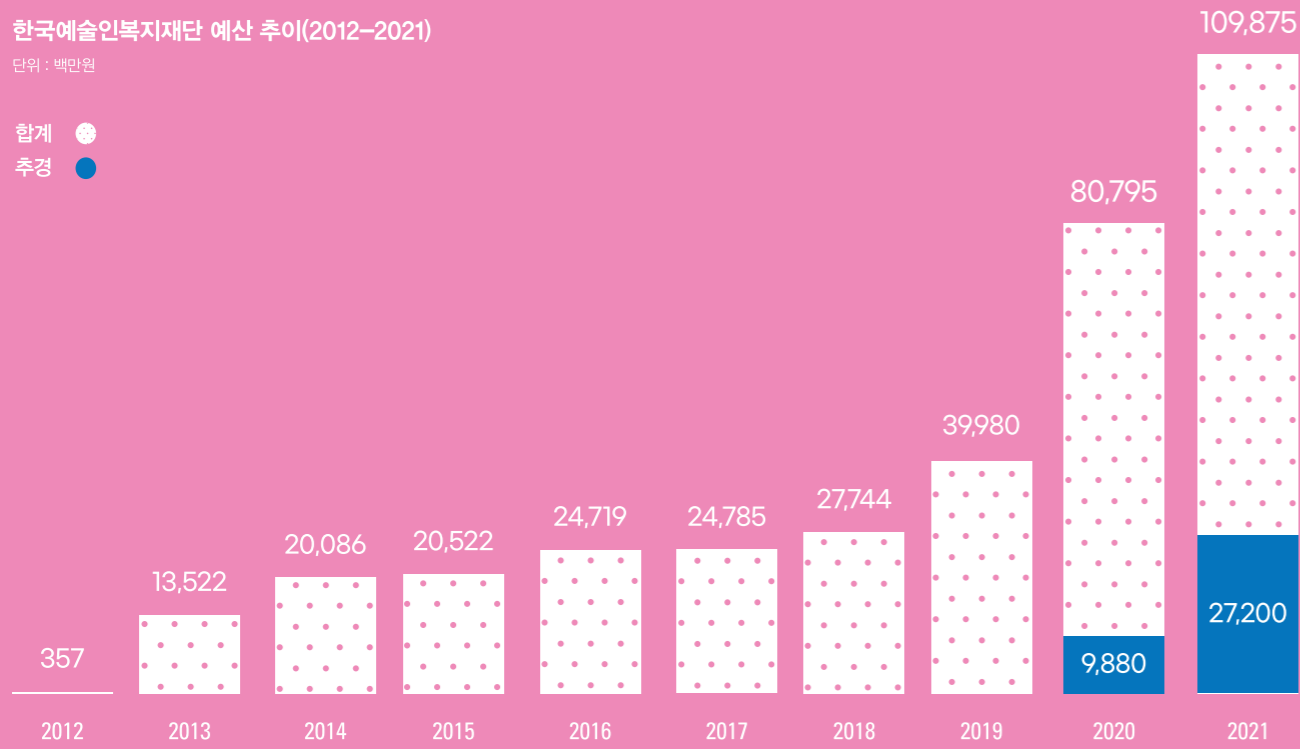
예산 현황

2021년 예결산 현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 추이(2012-2021)

단위 : 백만원

합계 ●
추경 ●



08

ANNUAL REPORT 2021

2021년 세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결산	
합계	109,875	106,300	
정부지원			
국고보조금	85,532	85,243	
체육진흥기금	225	173	
문예진흥기금	24,000	20,776	
기타			
기타	118	108	

2021년 세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결산	
합계	109,875	106,300	
예술인복지재단 운영지원	2,687	2,686	
- 인건비	1,880	1,880	
- 경상비	807	806	
직업역량강화	8,576	8,567	
창작역량강화	70,884	70,825	
불공정관행개선 지원	2,160	1,972	
사회보험가입	985	974	
예술인고용보험안내창구 운영	130	117	
예술인복지정책연구	110	102	
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강화	225	173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응자)	24,000	20,776	
기타	118	108	

사업 성과

2021년도 주요 성과

예술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2021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 예술인들의 어려움은 지속되었고, 재단은 예술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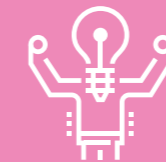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및 신진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 신설

추경예산을 확보(272억원)하여 당초 12,000명 규모이던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지원대상을 21,0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생애 1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을 6월부터 새롭게 도입했고, 2021년 총 3,000명의 신진예술인을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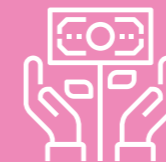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며 재단에서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예술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연중 상시로 온·오프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는 1,000명의 예술인들은 활동기간(약 6개월)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재단이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님에 따라 예술인과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했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2020년 8개 지역에서 316명의 예술인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지역사업'은 지역예술인들의 호응 속에 2021년에는 12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400명 참여로 확대되어 지역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가치 확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해 사업 참여 예술인 600명에게 7억 2천만 원의 활동비를 선지급했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응자)

전년 대비 50억 원이 늘어난 총 230억 원 규모로 운용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을 위해 2020년 신설된 '코로나19 특별응자', '전세자금 대출' 등 세 가지 상품을 운영했으며 총 2,418명이 응자 사업을 이용했습니다.

09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사업 성과

2021년도 주요 성과



예술활동증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예술인 대상 긴급 지원금 조건에 '예술활동증명 완료'가 포함되며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한 해 평균 약 1만 명씩 증가하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2020년과 2021년 각 3만여 명씩 증가했고, 2021년 2월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재단은 예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예술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3월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온라인 예술활동도 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무형문화재 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 실적증명 기간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을 하지 못한 예술인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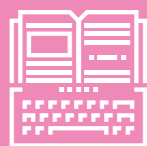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확대했습니다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대상 확대

재단은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5년부터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그동안 주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을 문화예술기획업자로 확대해 예술인계의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 정착과 예술인의 권리와 권익에 대한 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인식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예술인 권익보호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2019년 136명, 2020년 9,184명에 이어 2021년에는 15,547명이 수강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 위해 노력

2020년 말 도입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을 2021년에는 더욱 확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은 계약서를 쓰는 주체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재단은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실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 성과

창작역량강화

STABILIZATION OF CREATION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예술 활동을 준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입이 없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재단 대표사업입니다.

2013년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지원(창작디딤돌)',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으로 이어져 온 이 사업은 2016년과 2017년에는 예술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다 많은 예술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북돋우고 창작안전을 구축해왔습니다.

특히나 2021년에는 기존의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더해 신진예술인을 위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창작씨앗 사업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생애 1회, 1인당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총 3,000명의 신진예술인이 창작씨앗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해 272억 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12,000명이었던 지원 대상을 21,000명에게 기존과 같은 1인당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신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1인당 지원금

200만원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지원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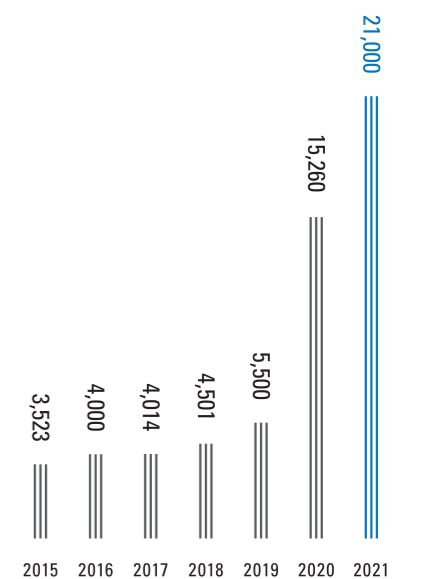
3,000명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1인당 지원금

300만원

2021년 기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누적 인원

57,798명



사업 성과

직업역량강화 DEVELOPMENT OF ARTIST'S CAREER SKILL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예술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창의적 사회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술인파견지원 - 예술로 사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은 예술인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새로운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개인의 예술적 역량을 통해 사회(기업·기관·마을)의 이슈를 해결하고, 재단은 예술협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의 활동비 및 교육,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예술적 기획·협업 사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문화의 창조성이 사회 전 부문에 확산되어 창의적 사회 토대가 마련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2021년 예술로 사업은 별도 모집된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연결되어 활동하는 협업사업,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사전에 팀을 이루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획사업, 지역문화재단과 연계하는 지역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나 2020년 8개 지역 316명의 예술인과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예술로 지역사업은 지역예술인들의 호응 속에 2021년에는 12개 지역(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400명의 예술인 참여로 확대되어 지역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가치 확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역사업 참여 예술인 400명을 포함하여 총 1,000명의 예술인이 199개 기업·기관·마을을 무대로 사회공헌 활동, 홍보마케팅, 인식개선, 지역문화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예술협업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사업 성과

직업역량강화 DEVELOPMENT OF ARTIST'S CAREER SKILL

예술인에게는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이용 유아와 아동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돌봄 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돌봄으로 긍정적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지원합니다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설 이용 유아와 아동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시간제 돌봄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보육으로 긍정적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중 임시휴관 기간 동안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정상이용 기간 중에도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예약 및 외부인 출입통제, 출입명부 작성 및 체온 측정, 마스크 및 손소독제 사용, 식사 중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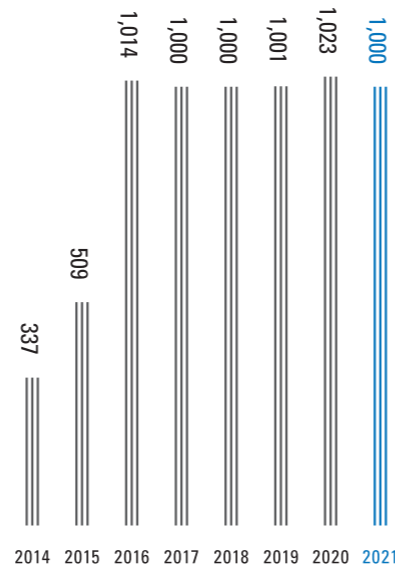
1인당 지원내역

약 6개월간 매월 활동비

120~130 만원

2021년 기준 누적 인원

6,884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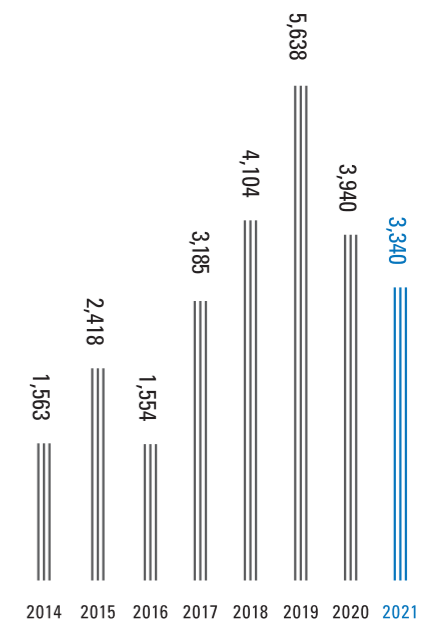
돌봄센터

2 개소

반디돌봄센터(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예술인자녀돌봄센터(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2021년 기준 누적 인원

25,742 명



사업 성과

불공정관행 개선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THE ARTIST

‘불공정관행 개선’은 예술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고 예술창작 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예술인의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은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창작의 날개를 펼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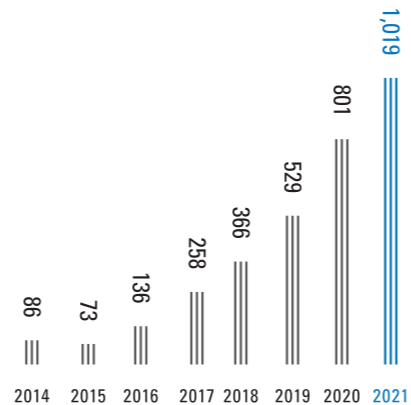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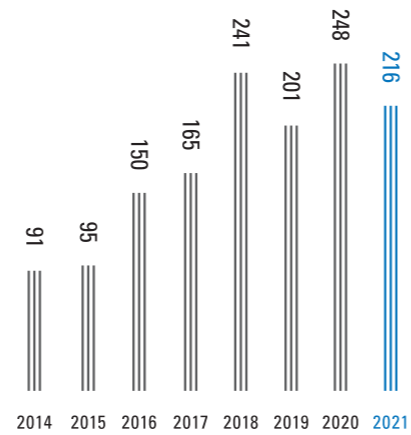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행정구제와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을 구축해 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사례비 미지급, 불공정 계약 등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 216건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아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법률상담 창구를 상설 운영하고 외부 컨설턴트 변호사를 27명으로 증원해 연간 1,019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온라인, 전화, 대면상담)

또한 2020년부터 신설된 서면계약 신고상담창구를 통해 계약서 미체결에 대해 신고를 받았으며,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사전검토, 불공정계약 여부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술계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었던 소액체당급 지급을 위한 각종 법적·행정적 지원활동 또한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예술인 신문고 총 누적 건수

1,407 건

법률 상담 컨설팅 총 누적 건수

3,268 건

사업 성과

불공정관행 개선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THE ARTIST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저작권 등 권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지원〉은 예술 현장의 무계약, 구두 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계약문화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단은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교육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계약 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통해 실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별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찾아가는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대상도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업자, 예비예술인(예술대학교 및 예술중·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교육 뿐 아니라 비대면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등 창구를 확대하여 더 많은 예술인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술 분야별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1,263명이 수강하였고, 〈찾아가는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의 경우 11개 대학, 3개 고등학교에서 총 18회, 현업 예술인 및 기획업자는 19개 단체가 수강하여 총 67회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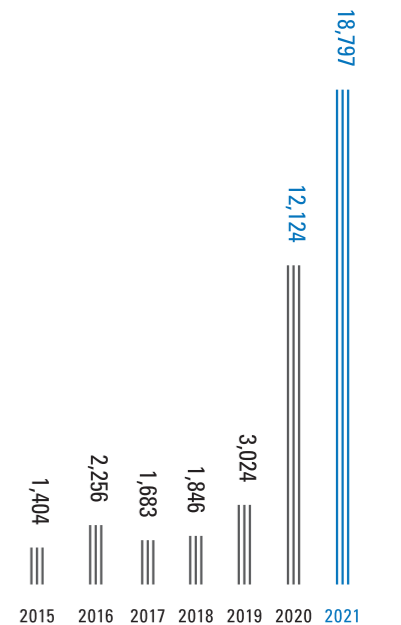
예술인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계약 및 저작권,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내용을 담은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서면 계약에 대한 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이해를 돕고 계약 문화 정착을 독려하는 ‘서면 계약의 이해’를 상시 학습 가능한 이러닝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며 2019년 136명, 2020년 9,184명에 이어 2021년에는 15,546명이 수강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 2021년 수강 인원

15,546 명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참여 총 누적 인원

41,134 명



사업 성과

불공정관행 개선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THE ARTIST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작활동의 두려움, 오롯이 혼자 감내해야만 하는 고독함 등 예술인은 심리적인 압박감과 어려움이 심한 직종 중 하나입니다.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예술인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창작활동 중 파생되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재단은 예산증액을 통해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 예술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울감이 커지지 않도록 심리방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2021년 한해 총 1,543명의 예술인이 심리상담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예술인은 전국 37개의 엄선된 심리상담지정기관에서 공인된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심리검사 및 최대 12회의 개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재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 심리상담을 종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그룹 집단상담을 운영하여 예술인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작품 활동 중에 있는 예술단체에 집단 심리상담 및 자기이해를 위한 심리교육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이 건강하게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비대면(온라인, 전화) 개인 심리상담을 확대해 보다 안전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 성과

불공정관행 개선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THE ARTIST

예술계 내의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와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은 미투 운동으로 대두된 예술계 내의 성폭력 문제 개선을 위해 성폭력피해 예술인의 위기상황 대처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성평등 인식 제고를 통해 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8년 6월 20일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여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계 내 피해자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을 비롯해 관련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접수 건수는 19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예술인, 예비예술인, 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예방교육도 실시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지원을 통해 예술인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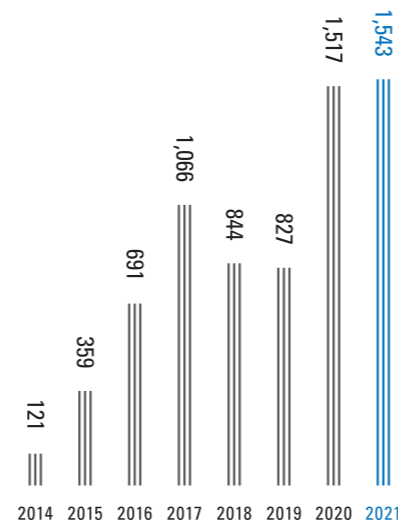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54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인원은 8,80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1년에만 4,622명이 예방교육에 참여하며 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심리상담 지정기관

37 개소

2021년 기준 누적 인원

6,968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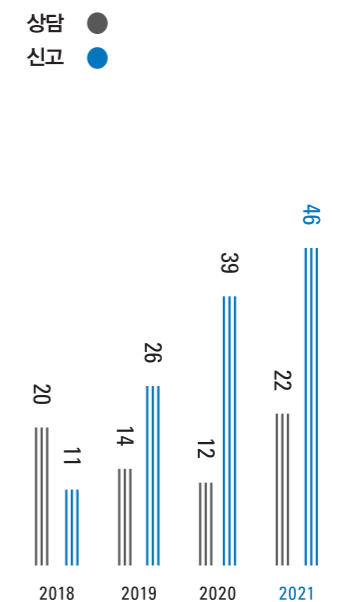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총 누적 건수

190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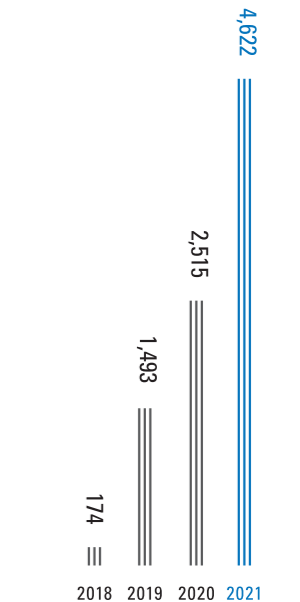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총 누적 인원

8,804 명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현황 (단위: 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단위: 명)



사회보장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해 중장기적인 복지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 내에 납부한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표준계약 체결 조건부 지원을 통해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확산해왔습니다.

기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던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2020년 12월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며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표준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40~80%를 지원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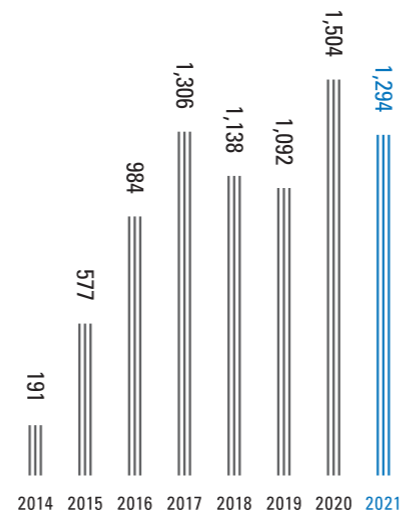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예술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40~80%

2021년 기준 누적 지원인원

8,086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위협은 물론 창작의 잠깐 멈춤이라는 이중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단 실업의 위기 속에서 다행히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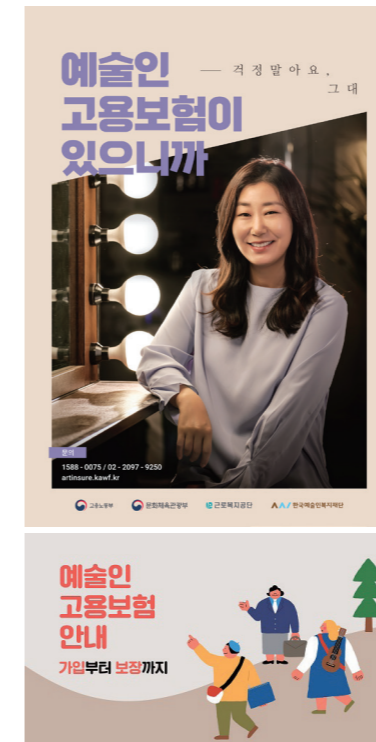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예술활동이 없는 실업기간과 출산기간 중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는 것은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이후 예술인 고용보험 연구용역, 예술계 의견수렴, 부처간 협의 등에 참여하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드디어 2020년 6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여러 가지로 진일보한 제도입니다. 우선, 예술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원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용역을 통해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해 계약의 상대방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당연가입 방식으로 도입이 되었고, 프랑스처럼 공연, 영상 등 일부 분야만 가입하는 것이 아닌 문학, 미술 등을 포함한 전분야의 예술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등 절차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며, 재단은 고용보험 제도가 예술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창구를 운영하며 연중상시로 온오프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후 2021년 12월까지 안내창구를 통해 이루어진 상담건수는 총 3,992건에 달하며 예술인 고용보험 찾아가는 설명회를 31회 진행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가입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현장을 위해 20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을 선정, 보험 신고 행정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 건수

3,992

찾아가는 설명회 건수

31

사업 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신체적인 부상 및 예술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돕고, 산재보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과 함께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형태로 가입하게 되며 1등급~12등급의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해지, 보험료 납부, 증명원 발급 등 산재보험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들의 산재보험료를 50~90%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산재보상과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면서 신규가입자 수는 2015년 89명에서 2021년 3,409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기준 누적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9,044명에 달합니다. 재단은 산재보험 보상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보상 관련 전문 상담 컨설팅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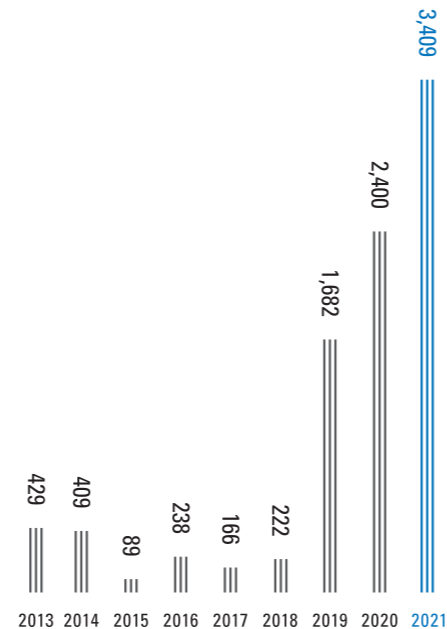
산재보험료 지원내역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50~90%

2021년 기준 누적 인원

9,044명



사업 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

2013년부터 시행된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과 과도한 치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출' 상황으로 고통 받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를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2021년까지 총 347명의 중증질환 예술인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았고,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 신청자격은 중증질환자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수준이 중위 소득 80% 이하이며, 거주지역별 보유자산이 기준이하인 예술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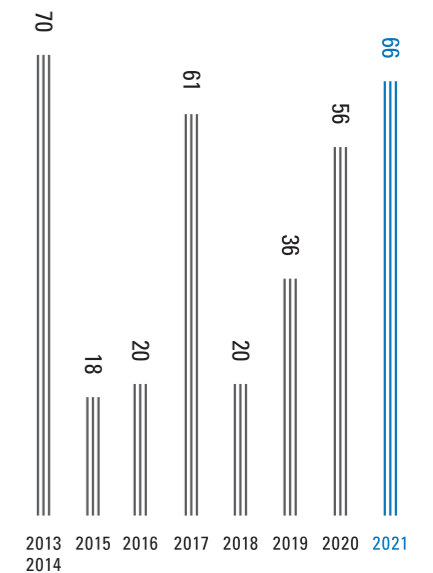
1인당 의료비 지원내역

본인 부담금 최대

300만원

의료비 지원 총 누적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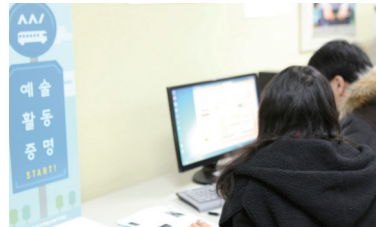
347명



사업 성과

예술활동증명 VALIDATION OF ARTISTIC ACTIVITIES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재단의 예술인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복지사업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이자 법적 근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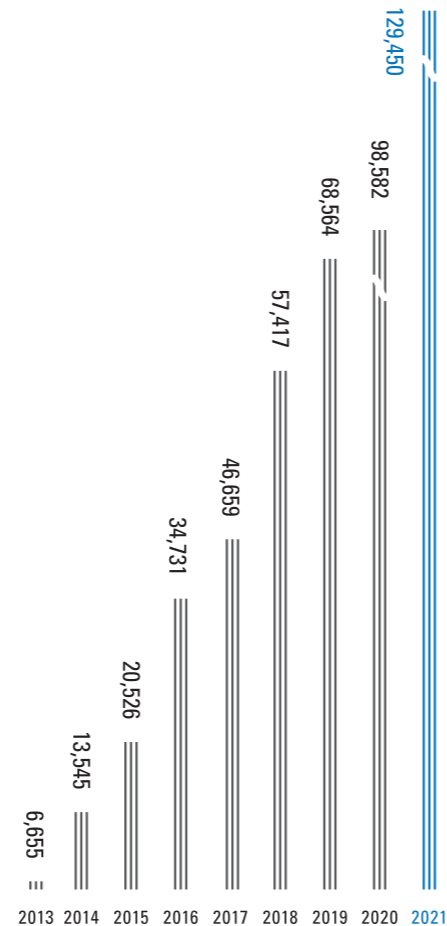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1개 예술 분야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 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 실적과 예술활동 수입에 대한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변화하는 예술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정착과 복지 지원을 위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온라인 예술활동도 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무형문화재 특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1년에도 3만 명 이상 신청자가 증가하며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수가 129,450명을 기록했습니다. 급증하는 신청자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14개 광역문화재단을 예술활동증명 협·단체로 지정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및 행정심의 운영 등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누적 완료자 현황

129,450 명



사업 성과

예술활동증명 VALIDATION OF ARTISTIC ACTIVITIES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카드로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패스

2016년 2월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예술인패스사업'을 이관 받아 '예술인패스(Art Pass)' 카드 발급률을 높이고, 문화예술인패스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예술인패스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방송, 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해 자긍심을 높이고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모바일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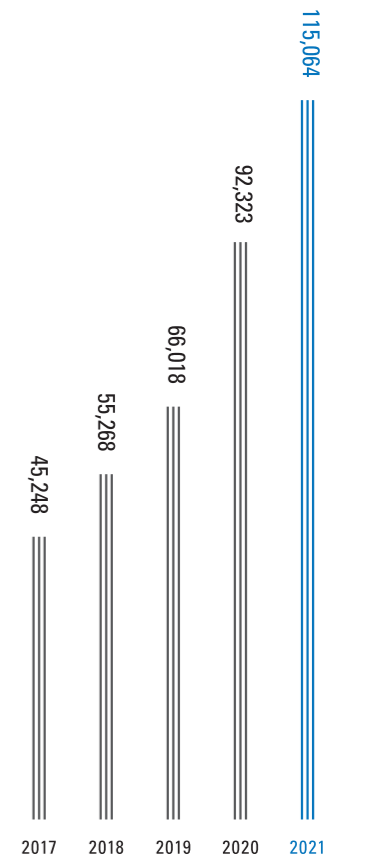
예술인패스 누적 발급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12월 카드 소지자는 총 115,06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용처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여 박물관, 공연장 등 제휴처 48곳을 추가로 확보하여 2021년도에는 총 618개소에서 예술인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술인패스 사용처

618 개소

2021년 기준 누적 발급자 수

115,064 명



사업 성과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상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금리 대출상품을 운영합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정책금융 사업입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 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였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50억 원이 늘어난 총 230억 원 규모로 운용되었으며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을 위해 전년대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코로나19 특별용자', '전세자금 대출' 등 세 가지 상품을 운영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 2%의 이율로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학자금, 결혼비용,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상품으로 2021년에는 기존 500만원이었던 최대한도를 7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용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취소, 연기되거나 수입이 감소된 예술인에게 1.2%의 이율로 최대 7백만원 한도의 대출을 제공했고, 1.7%의 이율로 최고 1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함으로써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 및 창작공간 확보를 도모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총 2,418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업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예술인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생력 회복을 지원합니다. 용자의 필수사항으로 '금융교육 이수' 요건을 두었고, 이와 별도로 예술인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신용관리,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차 보호법, 금융사기 예방 등)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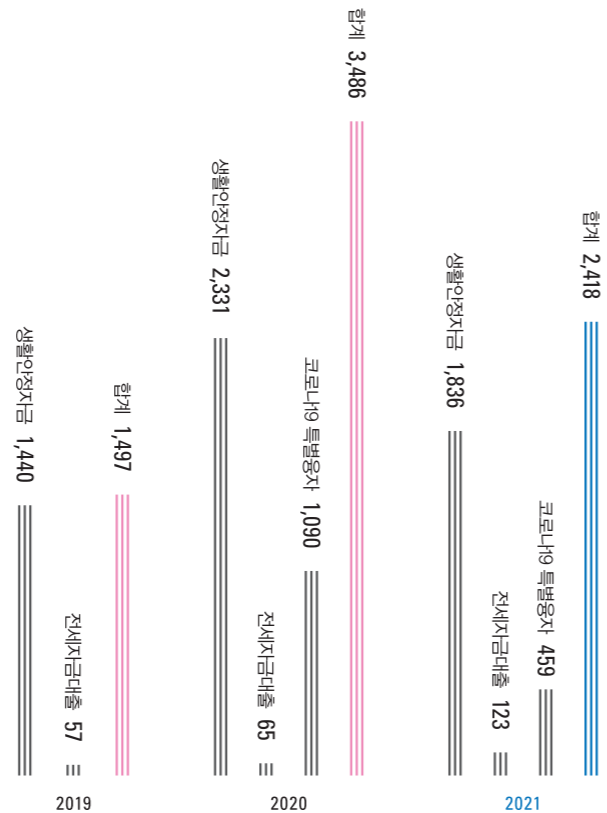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용자 총 금액

230 억원

2021년 금융지원 받은 예술인 수

2,418 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E ARTISTS, SMILE AGAIN

